

# 2022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8.23. 15시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6/10	3	-	9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권혁남 위원장, 문해주 위원, 정의식 위원,  
정경모 위원, 김희중 위원, 천경숙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추승호 보도본부장, 이정내 시청자센터장, 한승호 심의실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4	-	-	1	15	-	15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5	-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p>보도</p>	<p>6/21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아데노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줄었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들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 인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정의식위원)</p>	<p>두 바이러스 모두 7세 이하가 감염 다수를 차지하는 바이러스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장염, 고열 및 호흡기 증상의 원인으로 비교적 알려진 바이러스란 점을 고려해서 7월2일자로 이들 바이러스의 동향에 대해 다루는 리포트(소아청소년 감염병 동시유행..."활동량 늘어난 탓")를 제작했습니다. &lt;22.7월 조치&gt;</p>	<p>'22.7월</p>
<p>보도</p>	<p>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체계 확대하여 추가비극 막아야.두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장애인의 삶과 현실, 장애 가정 잇따른 비극...'24시간 지원체계' 절실 (2022-05-26), [뉴스메이커] 우영우 (2022-07-12), '니 얼굴' 정은혜 작가 "그림 그리며 시선강박 극복했어요" (2022-07-03) 최근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보다 많은 예산지원과 시스템 정비 및 확실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를 가꾸어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보도와 대안제시로 하루속히 구체적인 방안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정경모위원)</p>	<p>사회부에서는 지난달 23일 발달장애 문제와 관련해 3건의 특집기획 리포트를 제작해 방영했습니다. 또 김예림 기자는 스튜디오에 출연해 취재 후기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 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겠습니다. {발달장애①/이화영} 보호자 없는 발달장애 형제...돌봄 '사각' [발달장애②/김예림] 갈길 먼 발달장애인 탈시설..."법적 기반 필요" [발달장애③/윤솔] 지역사회 자립은 걸음마 수준..."지원 늘려야" &lt;22.7월 조치&gt;</p>	<p>'22.7월</p>
<p>총 건수</p>		<p>2건</p>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선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없음

##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재난사고 취재 및 보도 가이드라인, 최근 장마비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장마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취재 및 보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여야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보도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족, 특히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유가족들의 사생활보호를 유지하면서 어느 선까지 보도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명사고 시 유가족의 얼굴 노출, 극도의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 촬영 및 보도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긴급 보도 시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권혁남위원장)</p>	<p>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만든 재난재해보도 준칙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 10월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만들어 놓은 방송 재난관리 기본계획, 이것을 우리 TV사정에 맞춰서 약간 수정해서 사내 게시판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취재라든가 영상편집부, 뉴스총괄부에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는 숙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씩 보면 프라이버시 보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뉴스총괄부장이나 PD들이 발견하는 즉시 얘기를 해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p>	○		
기타	<p>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를 클릭하면 뉴스 화질이 너무 떨어진다. Video Quality가 최고 540픽셀에 불과하다. 경쟁사인 YTN은 720픽셀(HD)이다. 요즘 웬만한 동영상은 1080픽셀(FHD)인 것에 비하면 화질이 너무 떨어진다. 고화질 영상에 익숙한 시청자들이 저화질로 저장된 뉴스를 다시보기 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권혁남위원장)</p>	<p>2019년에 홈페이지 재구축을 하면서 360픽셀 480픽셀 540픽셀 세가지로 홈페이지하고 모바일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YTN의 720픽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당시에는 이제 스토리지, 트래픽 등 비용 요인 모바일 환경에서의 시청자들의 데이터 비용 등을 감안해서 만든 건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많이 상황이 변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분야는 저희는 아직 YTN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정된 재정 여건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디지털 분야를 확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이런 인프라도 업그레이드 해서 모바일 쪽에서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다누리' 관련 보도는 발사 며칠 전부터 연합뉴스tv의 모든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앵커 및 취재기자 단순보도, 출근길인터뷰, 특파원 보도, 그래픽뉴스, 영상구성, 전문가 초청 대담, 뉴스특보를 통한 현장 생중계 등)을 동원하여 시청자들에게 신속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노력을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출근길인터뷰'를 '다누리' 개발을 총괄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자나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면 더 현실감 있고 생생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제안(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출근길 인터뷰 진행)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약(생중계, 인력, 예산 등)이 있어 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문해주위원)</p>	<p>출근길 인터뷰를 통한 대전 항우연에 서의 인터뷰 진행 지금 생각해 보니 까 좀 아쉽습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 전날 내려 보내서 대전 항우연 관계자를 인터뷰했다면 더 돋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시도해 보겠습니다.</p>	○		
보도	<p>&lt;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술패권 관련 &gt;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뉴스를 여러 가지 내용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준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관련 내용에 대해 해외 동향이나 정부나 기업의 대응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단편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세계 1등기술 습득 여부가 국가흥망성쇠를 가르</p>	<p>칩4 동맹 관련해서 단편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어차피 칩4 동맹이 이제 구체화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견제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저희가 연합뉴스TV 스페셜이나 뉴스프리즘 같은 기획 보도 형식을 통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여건이 된다면 향후에는 국내외 동향을 심층 취재하고 분석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내용의 종합보도를 연합뉴스TV에서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문해주위원)				
보도	7/24 요즘 Hot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오티즘(자폐증:Autism)화가인 오티스트에 대한 보도를 통해 오티즘 환자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일회성이 아니라 드문드문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화가뿐만이 아니라 음악 예술 여러 분야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다운 증후군이 있는 환자들만 영화도 만들고 외국에서는 드라마도 만들고 직접 다운증후군 중에 있는 환자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문제점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정의식위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		
보도	7/25 삼성전자의 3나노개발이 TSMC보다 6개월 빠르게 선점한 것에 대한 보도와 그에 따른 설명 및 외국 상황에 대한 보도가 초보자도 알기 쉽게 잘 설명되어 좋았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상황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메모리와 비메모리에 대한 차이, 설명 등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설명은 있었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경쟁력(위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도 있었으면 합니다. (정의식위원)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사실 전문적인 용어가 어렵죠. 한두 마디로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리포트 1분 30초 길어봤자 맞춰야 1분 40초 정도 되는 분량에서 알아듣기 쉽게 짧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두 문장이라도 덧붙여서 시청자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		
보도	홍수 피해로 인한 보도가 홍수 당일과 다음 날에는 '특집'으로 보도하듯 하루 종일 보도하였지만, 그 이후	홍수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에 대한 보도가 당일 이후에는 한참 동안 없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이재민들에 대한 추가 보도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조금 아쉬웠다. 가끔씩은 그분들에 대피시설(체육관 등)에서의 생활 등에 대한 추가 보도를 통해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정의식위원)	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주 살피면 그분들한테도 격려가 되고 또 아마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을 텐데요. 며칠이 지나서야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보는 리포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분들 상황을 살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보도	청와대 활용방안 놓고 부처 간 다툼 벌어져..소통과 협력 속에 바람직한 활용방안 찾아서 새로운 문화강국의 시작이 되길.. "청와대를 복합문화단지...이건희 컬렉션도"...문체부 업무보고(2022.7.21.) [뉴스포커스] '청와대의 대변신...국민의 복합예술문화공간으로'(2022.7.22.) 거대한 미술관으로?...논란의 중심, 청와대의 운명은(2022.7.31.) 청와대 앞뜰 소파 광고 논란...문화재청"몰랐다"(2022.8.9.) 100일 맞은 청와대 개방...권력의 심장에서 국민품으로 (2022.8.17.) 고려시대부터 1천년간 이어진 최고권력의 공간, 청와대 앞에 놓인 과제는 보존과 활용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관련 정부 부처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복합 문화예술단지 조성 계획' 과 관련하여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청와대 활용방안이 도출되고 체계적으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와대의 새로운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줄속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언론본연의 견제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습니다. 복합 문화예술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 부처 간의 이견이 노출돼 있는 상태고 국민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충실한 활용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지속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정경모위원)				
보도	<p>집중 호우가 계속되면서 연합뉴스TV가 사실상 실시간 재난방송 역할 담당, 8월 수도권과 중부권에 집중된 집중호우 안타까운 인명사고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연합뉴스TV에서는 집중 호우와 관련된 일기예보에서부터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들을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뉴스 꼭지(8.9일, 뉴스특보, 폭우 피해 줄이려면... 기사 등)를 편성해 송출함,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관련해서 현장성 있는 뉴스의 제공에서부터 재난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의 안전 도모, 재난 이후 재난 대응 등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 제시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도 제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음.(김희중위원)</p>	<p>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충실하게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보도	<p>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점검, 경제분야인 Y노믹스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8.16일자 감세·규제개혁 100일...여건 녹록잖은 'Y노믹스' 제하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간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고 경제팀에서는 경제활력 회복을 강조했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경기침체란 복합위기를 만났다"고 전하고 이에 새 정부가 감세와 규제 완화를 처방하고 기업인 사면을 통한 기업가정신 복원 그리고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과 같이 과감하게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등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진단함.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자는 전문</p>	<p>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다 보니까 야마 새 정부가 경제 비전을 준비하고 제시하는 데 취약한 면이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 비전을 준비하는 것이 향후 우리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지 전문가의 견해 등을 토대로 해서 수시로 정부에게 촉구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가의 말을 빌려 "단기적인 경기 관리에는 비교적 충실한데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Y노믹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그러면서 기자는 윤석열 정부 Y노믹스의 성패는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에 대한 장기비전의 제도화와 실행에 달려있다고 날카롭게 꼬집고 있음. 향후 장기 비전과 관련한 후속기사를 뉴스프라임 등에서 다뤄 정부가 보완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 생각.(김희중위원)				
보도	건설기계도 민식이법 적용...스쿨존 사고 내면 가중처벌, 뉴스센터 13 2022-08-12 13:36:39 굴착기나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도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는 내용으로 방송으로 법무부는 오늘(12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가중 처벌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도 시청자가 듣기에 깔끔했고 그래픽 뉴스 또한 시청자가 보기에 적절한 자료화면을 사용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을 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연합뉴스 TV에서 지속적인 방송을 했으면 합니다.(천경숙위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확대는 모든 운전자에게 중요한 개정 사항입니다.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보겠습니다.	○		
보도	<07. 18 남부 세찬 장맛비 '호우특보... 최대 250mm↑ > 날씨 방송이 계속 일신우일신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시청자의 한사람으로써 장마	날씨 지도에 표기하는 지역 수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확대했습니다. 여러 곳을 표기하면 좋지만, 너무 많으면 시청자들이 한눈에 보기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기간동안 출근길, 퇴근길 등 날씨에 더욱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7월 18일 날씨뉴스 출근길인 오전 8시18분경에 &lt;07. 18 남부 세찬 장맛비 '호우특보... 최대 250mm↑ &gt; 동 내 용은 출근길 모든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지역 시청자들의 정보제공을 보면, 전체날씨 낮기온 12곳만 표시함, 두터운 시청자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 및 정보제공 차원에서도 각 지역 도청소재지 정도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도청소재지 창원(인구100만넘어서 특례시편입), 경상북도 도청소재지 안동은 누락되었음. 그러나 동시간대 YTN에서는 지역 19곳 표시, 창원(경남도청소재지)과 안동(경북도청소재지), 울릉도 독도 등 디테일 있게 YTN은 연합뉴스 TV에 비해 CG제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관련화면 CG제공과 함께 생방송으로 보도하고 난 이후에도 그 내용을 자막을 통하여 계속 내보냄, 날씨보도는 일관성 있게 전국 광역자치단체인 도청소재지 정도는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시청자들이 소외감이 느끼지 않게 보도 해주시기 바람(박찬재부위원장)</p>	<p>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시성이 떨어지는 거죠. 2016년에는 13곳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부터는 26곳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으로만 처리하면 한눈에 보기 어려워 2장으로 나눠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지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두 번째 지도에는 인구 수 1,2위 도시와 도청소재지, 중요 도시를 넣고 있습니다.</p>			
<p>보도</p>	<p>가족 돌보는 청년들 '영케어러' 폭염엔 이중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영케어러의 어려움을 다루어 좋았습니다. 어린 청년들이 부모 혹은 조부모의 부양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건 문제 있으며 기사에서 보도한 것처럼 전국에 30만명 정도 있을 것이라 추산하고 있고 정확한 통계가 없다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결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면 의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영우는</p>	<p>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계기로 한 뉴스프리즘 기획은 비장애인이 받는 일반적인 사회적 서비스와 권리를 장애인도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는 취지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향후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현실 이슈를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판타지, 김정훈은 현실...고래점프 해법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것, 장애인의 사랑, 아동의 행복추구권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소재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처한 현실,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 이동권과 복지, 사회적 돌봄 등의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사로 구성하여 좋았습니다.(이현숙위원)				
보도	연합뉴스TV특성상 신속하고 현장감있는 보도가 생명이겠지만 보도내용이 대부분 현황을 보도하는 내용에 그치고 있어서 원인 및 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후속보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예를들어 금번 집중호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강남역 사거리 부분은 호우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가 나타나고 조금이라도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 그 피해규모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보도의 경우에도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매번 사고현장의 스케치가 집중적으로 보도됨, 따라서 현황 및 문제점에 그치지 말고 상습침체가 왜 일어나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종합적인 대안에 대해 전문가, 정부 등 의견을 제시하는 심층기획 프로그램, 예를들면 뉴스프리즘 등에 집중 다루어주면 좋겠음 (유환익위원)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강남지역의 구조적인 문제점, 수해 대비 시설의 취약성 등을 다뤘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기획보도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보도	[그래픽뉴스] 시각적 효과를 보다 극대화한 이미지 활용 고민했으면,역시 짧게는 하루 만에, 길게는 4~5일 만에 보도되고 있는 [그래픽뉴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용되는 그래픽들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드뉴스의 그래픽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관계나 통계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래픽의 취지인 만큼 텍스트를 줄이고 시각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모든 그래픽 자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도에 활용되는 상당수 그래픽들에서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파워포인트(PPT) 자료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8월 11일 보도된 &lt;월드컵 D-100&gt; 기사나 8월 12일 보도된 &lt;AI 홍수 예보&gt;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나 통계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픽적 요소를 통해 뉴스를 전달하기보다는 단순히 기사 내용을 글로 이미지화한 뒤 진행자가 그대로 읽는 모습에서 다소 지루함이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lt;AI 홍수 예보&gt; 기사에서는 그래픽 대신 하천홍수지도가 오랜 시간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코너 제목이 [그래픽뉴스]인 만큼 독자들이 제목을 보고 기사를 클릭할 때 기대하는 그래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살짝 못 미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문장의 글로 뉴스를 전달하는 [카드뉴스]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제목 그대로 공들여 직접 제작한 그래픽이나, 다른 기관에서 만든 적절한 그래픽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김세한위원)</p>	<p>니다.</p>			